

# 歷史·文化地理學

盧道陽·張保雄

## 1. 序言

歷史地理學과 文化地理學은 人文地理學의 어느分野보다도 時間의 간격을 길게 잡고 文化景觀을 주로 研究하는 공통점이 있다.

歷史地理學은 地理的 事象이 發達해온 過程의 研究 즉 自然과 人間과의 相互關係에서 이루어지는 人文景觀 및 自然景觀의 變遷過程을 研究하여 어느 地域의 過去의 特性和 現在와의 關聯을 究明하는 學問이다. 그리고 地理學의 分析에 있어서 歷史的인 方法(historical approach) 또는 發生論的인 方法(genetic approach)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過去의 狀態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過去의 地理, 특히 時間의 經過에 따르는 地理的인 變遷(geographical change)에 關心을 갖고 體系的으로 研究할 때 歷史地理學의 研究가 된다.

過去의 地理(past geography)나 地理的變遷에 關한 것은 文化, 自然, 生物等の 主題에 關係없이 歷史地理에 속한다. 따라서 歷史地理學은 어떤 主題에 의한 分科가 아니며, 어떤 主題에도 適用될 수 있는 一種의 方法論上의 分類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歷史地理는 人文地理의 一分科가 아니고 人文地理 自然地理 모두에 適用되고 또 地誌와 系統地理의 兩面에도 適用되는 過去라는 次元에 屬하는 또 하나의 地理學이라고 R. Hartshorn은 말하였다. 史學은 過去에 있어서의 人間活動, 즉 人間과의 關係에 主眼을 두고 時代에 密接하나 歷史地理學은 過去에 있어서 人間活動, 즉 人間과 自然環境과의 相互關係에 主眼을 두고 地域과 거기에 形成된 文化에 關係가 많다. 따라서 歷史地理學者는 人間의 文化가 없는 時代에는 興味를 갖고 있지 않다.

文化地理學은 人類文化의 空間分布와 空間的 關係를 理解하기 위해서 物質的 文化現象과 非物質的 文化現象을 研究하는 學問이다.

대체로 獨逸學派의 地理學者들은 文化地理學(Kulturgeographie)을 自然地理學과 함께 地理學의 二大部門의 하나로 보는 廣義的인 해석을 해왔다. 人文地理學(géographie humaine)이란 用語는 프랑스 學派에서 그의 源流를 찾을 수 있으며, 獨逸에서는 人類地理學 또는 文化地理學으로 쓰여 왔다. 美國에서도 自然地理의 相對概念으로 文化地理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廣義의 文化地理學은 人文現象의 넓은 領域을 다루는 地理學의 分野이다.

戰後 美國, 日本 등지에서는 文化地理學을 狹義로 생각하여 어떠한 文化的 Topics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傾向이 뚜렷해지고 있다.

文化地理學의 研究內容은 文化現象의 地域的 分布와 그의 構成要素 및 特質을 研究하고 文化的 地域間的 比較, 環境과 文化와의 關係, 文化的 地域的 移動 등이다. Carl Sauer는 人文地理學은 人間 그 자체의 地理學的 研究이고, 文化地理學은 人間이 만든 文化的 地理學的 研究라고 하였다.

文化地理學의 主要한 課題는 各時代 및 그의 空間에 있어서 人間이 만든 文化的 類型과 그의 構造의 解明이며, 그의 變化와 移動을 포함해서 多樣한 文化現象이 場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性格을 구체적으로 觀察하고 記述하고 說明하는 것이다.

以下の 歷史 文化地理學의 研究動向에 引用된 諸論文은 「地理學」 1~10號에 게재된 것을 주로 이용하였음을 밝혀둔다.

## 2. 歷史地理學의 研究動向

歷史地理學은 한때 地理學發達史와 同意語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 19世紀에는 歷史地理學이 探險史, 發見史, 地球의 地圖化史 等の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歷史地理學의 出現初期에는 政治史, 國家史에 關聯된 史學者들이 國境의 變遷史, 戰場

과 征服地의 考證, 또는 領土의 得失등을 歷史地理學의 主內容으로 했었다. 耕地制度, 農民의 構造, 村落景觀의 發達史 등의 研究를 英國에서는 社會經濟史學者들이 했고 프랑스에서는 地理學者들이 主로 했다. 프랑스에서는 歷史와 地理가 매우 密着되어 있다.

今日에 있어서 歷史地理學의 主要內容은 첫째는 歷史에 있어서 地理的 因子의 作用에 關한 研究이고, 둘째는 文化景觀의 變遷과 復原에 關한 研究이며, 셋째는 過去地理學의 復原이고, 넷째는 地理的事象의 變遷에 關한 研究등이다. 戰後韓國에 있어서 地理學者의 歷史地理學의 研究 內容은 첫째 韓國地理學史 및 地圖史에 關한 것이고, 둘째는 文化景觀의 變遷 및 復原에 關한 것이며, 셋째는 過去地理學의 復原에 關한 것 등이다.

### (1) 地理學史 및 地圖發達史에 關한 研究

韓國의 地理學史 및 地圖發達史에 關한 研究는 戰前에 韓國人 및 日人 歷史學者들에 의해서 研究되었었다. 戰後에 地理學 專攻分野에서 執筆된 韓國地理學史는 李燦의 것<sup>11)</sup>이 있다. 古代에서 朝鮮時代末인 1910년까지의 地理學 發達을 各時代別로 主要 內容을 簡략하게 整理하고 紹介하였다. 특히 金正浩의 靑邱圖와 大東輿地圖에 關해서 詳細하게 記述하고 있다. 佛文으로 쓴 盧國場의 韓國地理學史<sup>12)</sup>도 있다. 이것은 古代에서 부터 朝鮮時代까지 古地誌書와 古地圖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地理學發達過程을 整理한 것이다.

地理教育史에 關한 研究는 張保雄의 開化期의 地理教育<sup>13)</sup>과 日本統治時代의 地理教育<sup>14)</sup>이 있다. 前者는 韓國地理教育史에서 중요한 時期인 開化期의 地理教育을 甲午更張을 中心으로 整理를 試圖했다. 즉 甲午更張 以前에 近代的인 地理學과 地理教育이 어떻게 導入되었으며 甲午更張 以後에는 各級 近代學校의 地理教育 內容과 그것이 어떻게 變遷하였는가를 當時 各級 學校에서 사용한 地理教科用 圖書와 教科課程을 中心으로 考察한 것이다. 後者는 韓日合邦 前의 開化期의 地理教育이 日本統治時代로 넘어와서 어떻게 關連되고, 展開되었는가를 前期, 中期, 後期로 時代를 三分하여 各期에 있어서의 地理教育의 內容과 特色을 考察하였다.

擇里誌에 關한 研究가 있는데 徐樹仁은 擇里誌를 地理學의 側面에서 分析하였고 特히 地人相關論의 으로 記述된 것을 높이 評價하고 그것이 地理學史에서 차지하는 位置에 關해서 言及하고 있다.<sup>15)</sup> 盧

道陽은 擇里誌에서 卜居總論의 內容을 村落立地의 側面에서 現代的 解釋을 試圖하였다.<sup>16)</sup> 즉 村落立地의 自然的 經濟社會的條件을 卜居總論에서 分析한 力作의 論文이다.

地圖發達史에 關한 研究는 歷史學者 및 科學史學者들의 研究業績이 많았다. 地理學分野에서는 邢基柱의 文獻的 研究<sup>17)</sup>가 있다. 즉 韓國古地圖 研究에 必要한 參考文獻과 主要 古地圖의 特色과 所藏者를 紹介하였다. 古地圖에 關한 研究는 1970年代에 들어와서 比較적 활발하였다. 李燦의 韓國古地圖에 關한 研究<sup>18)</sup>는 中國 古來의 宇宙觀과 地理的 知識의 影響을 받은 韓國의 世界地圖類인 「天下圖」와 權近의 跋文이 있고 李蒼가 편찬한 朝鮮初의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關한 것으로, 地圖의 特色 作製經緯에 關해서 詳細하게 記述하고 있다. 또 李燦은 上記의 論文과 그의 著 「韓國地理學史」에서 地圖史部分을 발췌하여 英文으로 韓國古地圖史<sup>19)</sup>를 發表하였다. 여기서 취급한 古地圖는 朝鮮時代의 것으로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東國輿地勝覽의 「八道總圖」, 鄭尙驥의 「東國地圖」, 金正浩의 「靑邱圖」와 「大東輿地圖」 등이다.

張保雄은 李朝初期, 15世紀에 製作된 地圖에 關한 研究<sup>10)</sup>를 日本에서 發表하였고 또 마테오 릿치의 世界地圖에 關한 研究<sup>11)</sup>를 發表하였다. 前者는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海東諸國記의 附圖, 鄭陟의 「八道圖」, 梁誠之의 地圖, 東國輿地勝覽의 「東覽圖」에 關해서 그의 特色과 製作經緯 및 地圖作成方法을 상세하게 言及하고 있다. 後者는 마테오 릿치가 中國에서 布教의 한 수단으로 漢譯世界地圖를 製作한 經緯를 年代順으로 상세하게 考證하고, 또 中國 및 韓國의 地理學發達에 미친 影響에 關해서 東西洋의 文獻을 토대로 해서 상세히 記述하였다.

盧禎植은 1969년부터 大邱教育大學論文集에 地理學史 및 古地圖, 古地誌에 關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韓國地理學史의 새로운 體系수립을 試圖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은 「芝峰類說」에 나타난 地理學的 內容에 關한 연구<sup>12)</sup>, 西洋의 宣教師들이 中國에 와서 宣敎活動의 一環으로 만든 各종 世界地圖에 關한 연구<sup>13)</sup>, 李朝時代에 著述된 世界地誌에 關한 研究<sup>14)</sup>, 및 金正浩板刻의 「地球前後圖」에 關한 연구<sup>15)</sup> 등이다.

金永日是 California 大學 留學中에 「東國輿地圖」에 關한 研究를 世界的 古地圖研究 專門誌 *IMAGO MVNDI*<sup>16)</sup>에 발표하였다.

## (2) 文化景觀의 變遷 및 復原에 관한 研究

H. Hassinger는 各時代의 文化景觀을 復原하는 것이 歷史地理學의 課題라고 하였다. 李燦은 稻作의 起原과 傳播에 관한 歷史地理의 研究<sup>17)</sup>라는 力作의 論文을 發表하였다. 本論文은 루이지아나州立大學에 博士學位論文으로 1960년에 提出한 것의 序論으로 썼던 것을 우리말로 要約한 것이다. 世界의 稻作地域을 系統的으로 理解하기 위해서 그 起源과 傳播의 經路를 찾고 또 世界의 稻作地域의 類似點과 相異點은 自然條件의 差에 起因하는 바도 있으나 그것보다 더 큰 役割은 稻作民族의 文化階梯와 稻作導入의 經路라는 것이 基本的인 생각이다. 따라서 本論文은 稻作文化에 관한 歷史·文化地理學의 研究로서 該分野에 있어서 優秀한 研究物이며, 後進들에게 示唆하는 바가 많다.

舊邑聚落에 관한 李琦錫의 研究<sup>18)</sup>는 京畿地方의 舊邑을 變遷以前으로 復原하고 또 그후에 變遷되는 歷史的 過程을 究明하고 舊邑의 形態와 機能을 綜合的으로 分析, 把握하였다. 聚落의 歷史地理學의 研究方法의 하나를 例示한 力作의 論文이다.

都市景觀의 復原에 관한 崔永俊의 研究<sup>19), 20)</sup>가 있다. 仁川開發을 前後한 地理的景觀을 復原하고 都市化에 따르는 景觀變化의 特性을 考察한 것과 景觀要素 가운데 散佚의 우려가 있는 자료를 수집·보충하여 당시의 景觀을 復原하고 現景觀에 미친 影響 및 景觀變化의 要因등을 研究한 것이다.

歷史的 遺蹟地를 比定한 盧道陽의 研究<sup>21)</sup>는 文獻의 解釋과 現地 踏査를 통한 地名調査 및 遺蹟의 考察로 百濟의 王興寺址를 比定하여, 歷史地理學의 研究가 史學에 貢獻한 例를 보여준 秀作의 論文이다. 李燦은 韓半島의 石器時代의 氣候와 植生 및 海面의 高度와 海岸線등의 自然環境을 復原하여 先史時代의 遺物 遺蹟 解釋에 많은 도움을 주는 研究를 發表<sup>22)</sup>하였다.

## (3) 過去地理學의 復原에 관한 研究

15世紀 朝鮮王朝의 地理 復原에 관한 盧道陽의 研究가 2편<sup>23), 24)</sup> 있다. 水產業과 農牧業의 地理를 復原한 것인데 前者는 漁場의 道別分布와 製鹽의 方法과 그의 分布에 관해서 地圖化하고 分析한 研究이며, 後者는 當時의 農業의 特色, 農業經營, 農業技術, 農具 및 水利施設, 耕地의 分布, 主要農作物에 관해서, 방대한 史料를 分析하여, 詳細하게 밝힌 論文이다.

## 3. 文化地理學의 研究動向

文化地理學을 構成하는 主要內容은 學者에 따라 다르다. Wagner와 Mikesell은 “*Readings in Cultural Geography*”에서, 文化(culture), 文化地域(cultural area), 文化史(cultural history, 主로 文化의 起原과 傳播), 文化生態學(cultural ecology)등을 들고 있다. E.T. Price는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에 文化地理學의 主要內容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 文化形成初期에 人間이 環境을 利用하는 發達過程에 관한 것, ② 人間에 의해서 地表에 생긴 自然的 變化에 관한 것, ③ 聚落의 形態, ④ 言語, 宗教와 같은 非物質文化, ⑤ 文化의 起原과 傳播, ⑥ 文化의 進化, 등이다. 上記의 內容을 어느 個人이 全部 研究하는 것은 不可能하며, 文化地理學者는 어느 한 分野에 專攻하고 있다. 文化地理學의 첨단 부분은 文化의 傳播(diffusion)에 관한 研究이다.

文化의 要素를 綜合的으로 研究하는 學問은 文化地理學·民族學·文化人類學·民俗學·文化史 등이며, 文化要素 別로 體系의 으로 研究하는 學問은 宗教學, 言語學, 美術史, 建築學 등이다. 따라서 文化地理學을 幅 넓게, 깊게 연구하려면 上記의 文化와 관련된 諸科學의 기초적 素養과, 연구성과의 도움이 絶대로 필요하다.

戰後에 韓國에 있어서 文化地理學의 연구논문 의 편수는 적지만 分類해보면 컸는 文化의 起原과 傳播에 관한 研究, 들켜는 民家의 文化地理學의 研究 컸는 宗教地理에 관한 研究 등이다.

### (1) 文化의 起原과 傳播에 관한 研究

最近에 文化地理學이 큰 關心을 갖는 部分의 하나는 文化의 空間에 있어서의 運動, 즉 文化의 空間的 移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研究는 發生論的 歷史地理學의 研究가 수반되는데, Sauer의 「農業의 起源과 그의 傳播」가 代表的인 研究이고, 韓國에서는 李燦의 稱作文化의 起原과 傳播에 관한 研究<sup>25)</sup>가 있다. 本論文은 歷史地理學의 研究動向에서도 言及한 바 있으나 가장 典型的이고 優秀한 研究業績으로서, 資料가 풍부한 先進國에서 可能한 研究라 생각된다.

### (2) 民家의 文化地理學의 研究

民家의 文化地理學의 研究는 1970年代 前半期에 서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物質文化의 하나로

民家を 指標로 하여 文化地域區分을 試圖한 張保雄의 研究<sup>26)</sup>과 李燦의 研究<sup>27)</sup>가 있다. 前者는 民家の 型뿐만 아니라 民家 内部空間의 機能 및 分布地域에 의해서 地域區分을 試圖했고 또한 種래의 民家에 의한 地域區分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研究踏査를 통해서 발견한 側入型 民家에 관한 最初의 報告를 記述하고 있다. 後者도 民家を 指標로 하여 韓國의 文化地域 區分을 試圖한 中間報告의 形式으로 中部地方의 民家を 分析한 研究인데 機動力을 동원하여 약 4000戶의 民家標本을 수집하고 分析하여 客觀的 신뢰도를 느끼게 하는 量感있는 研究이다. 李燦의 上記와 같은 研究方法은 美國의 루이지애나 州立大學의 F. Kniffen 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濟州島의 民家에 관한 文化地理學的 研究<sup>28)</sup>가 張保雄에 의해서 發表되었다.

여기서는 濟州島 民家の 諸要素를 分析하고 歸納하여 지붕의 類型, 間配置의 類型, 建物配置의 類型 등을 分類하고, 民家型의 形式과 樣式의 傳播經路를 追求하는 文化地理學的인 研究方法 이외에 民俗學的, 建築學的, 文化人類學的 言語學的 研究方法을 接用하여 濟州島 民家에 담겨진 南方文化의 要素와 北方文化의 要素를 밝혔다. 또 張保雄의 側入型 民家에 관한 研究<sup>29)</sup>가 있다. 江原道 三陟郡 新里와 東話里에 化石의으로 殘存하는 側入型 民家에 관한 發生地域과 發生의 必要性和 側入型의 機能에 관해서 考察하였다. 동시에 絶滅되어 가는 側入型 民家の 保存의 必要성을 強調하고 있다.

### (3) 宗教地理에 관한 研究

宗教의 文化地理學的 研究는 申重盛의 韓國 기독교의 傳來와 分布形態에 관한 研究<sup>30)</sup>가 있다. 本研究는 韓國에서 기독교의 傳播과 分布를 地圖化 過程을 통해서 地域的인 類型 또는 差異點을 찾으려고 試圖한 力作의 論文이다.

## 4. 歷史 文化地理學의 展望

### (1) 歷史地理學의 展望

우리의 地理學이 무엇보다도 現實 社會에 有用하여야 하고 實生活에 適用되는 價値를 지녀야겠다. 擇里誌의 著者 李重煥은 16世紀初葉 江陵府의 西쪽 지금의 芳林부근을 지나가다가 다음과 같은 記錄을 남겼다.

「數十年부터 山野가 모두 개간되고 농장이 增加

되고, 山에는 나무가 없어졌으니 山川이 多少 괴로한 것 같다. 洪水가 나던지, 山이 무너지던지 하던 모래가 漢江으로 흘러들어 가서 漢江의 깊이가 점점 얕아질 것이다.」

우리의 先人은 漢江의 河底가 堆積作用으로 알아질 것을 이미 300年前에 豫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의미에서 歷史地理學은 앞으로 우선 我國土의 研究에 더욱 노력하며 점차 그 範圍를 世界로 擴大하여야겠다.

현재 韓國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는 歷史地理學의 부분은 地理學史와 地圖史 部分 및 過去 地理學의 復原분야이다. 歷史地理學의 課題의 하나인 文化景觀의 復原에 관한 研究가 적고, 歷史에 있어서 地理의 因子의 作用에 관한 연구는 태무한 실정이다. 韓國의 歷史地理의 研究에는 漢文으로 된 古文獻의 理解없이 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歷史地理學에 뜻을 둔 地理學徒는 漢文의 基礎素養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큰 進展이 있을 것이다.

### (2) 文化地理學의 展望

地理學이 너무 現時的인 것을 研究하다 보면 急速히 變化하는 社會의 Tempo에 따라가지 못하여 어제의 研究가 오늘에 와서 별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長久한 時間을 통해서 空間에 展開된 文化의 地理的 研究야 말로 地理學의 眞價를 他學問에 誇示할 수 있고, 우리 民族文化의 特質을 밝히고 理解하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分野이다. 文化와 관련된 諸科學의 기초적 素養을 보다 폭 넓게 쌓고 文化地理學에 接近할때 보다 많은 成果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各大學의 地理學科에서도 文化地理學 講座를 적극적으로 開設하여 今後地理學을 전공하는 學徒들이 文化地理學에 보다 많은 關心을 갖도록 하고 文化地理學의 전문적 研究家가 많이 配出되어 아직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文化生態學, 言語地理學, 民俗地理學, 技術의 擴散등의 分野에 관한 연구도 나와야겠고, 文化地理學의 各分野의 研究成果가 누적될때 韓國의 文化地理體系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盧道陽：明知大 教授, 張保雄：東國大 教授)

### 參 考 文 獻(註)

- 1) 李燦, 1968, 韓國地理學史, 韓國文化史大系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史研究所, pp. 681-734.
- 2) 盧道陽, 1974, *Histoire de la Géographie en Corée*, pp. 41-64.

- 3) 張保雄, 1970, “開花期の 地理教育”, 地理學, 第5號 大韓地理學會, pp. 41-58.
- 4) 張保雄, 1971, “日本統制時代の 地理教育”, 群山教大 論文集, 第4輯, 群山教育大學, pp. 1-35.
- 5) 徐樹仁, 1963, “擇里誌研究序說”, 地理學 第1號, 大韓地理學會, pp. 83-90.
- 6) 盧道陽, 1963, “八域志「可居地」解説”, 地理學 第1號, 大韓地理學會, pp. 91-96.
- 7) 邪基柱, 1963, “韓國古地圖에 關한 研究資料”, 地理學 第1號, 大韓地理學會, pp. 97-109.
- 8) 李 燦, 1971, 韓國의 古世界地圖에 關한 研究, 文敎部學術研究論文, pp. 1-40.
- 9) 李 燦, 1972, “Old Maps of Korea: Historical Sketch,” *Korean Journal*, Vol. 12, No. 4, pp.4-14.
- 10) 張保雄, 1972, “李朝初期, 15世紀において製作された地圖に關する研究”, 地理科學 第16號, 地理科學學會, pp. 1-9.
- 11) 張保雄, 1975, “利瑪竇의 世界地圖에 關한 研究”, 東國史學 第13輯, 東國史學會, pp. 34-76.
- 12) 盧禎植, 1969, “「芝蜂類說」에 나타난 地理學的 內容에 關한 研究” 大邱教大 論文集, 第4輯 pp.131-147.
- 13) 盧禎植, 1970, “西洋地理學的의 東漸” 大邱教大 論文集 第5輯, pp. 225-255.
- 14) 盧禎植, 1971, “韓國의 世界地誌的 著述에 關한 研究”, 大邱教大 論文集 第6輯, pp. 202-230.
- 15) 盧禎植, 1972, “金正浩板刻의 「地球前後圖」에 關한 研究” 大邱教大, 論文集 第8輯, pp. 257-266.
- 16) Kim, Young-il, 1967, “Dong-Kook-Yu-Ji-Do: a recently discovered manuscript of a map of Korea,” *IMAGO MVNDI XXI*
- 17) 李 燦, 1963, “稻作的 歷史地理的 考察” 地理學 第1號 大韓地理學會, pp. 50-65.
- 18) 李琦錫, 1968, “舊邑聚落에 關한 研究, 京畿地方을 中心으로”, 地理學第3號, 大韓地理學會, pp. 31-44.
- 19) 崔永俊, 1974, “開港을 前後한 仁川의 地理的 研究”, 地理學과 地理教育 第2輯, 서울大學校教育大學院, pp. 1-38.
- 20) 崔永俊, 1974, “開港前後의 仁川의 自然 및 人文景觀”, 地理學 第10號, 大韓地理學會, pp. 43-59.
- 21) 盧道陽, 1971, “百濟王興寺址考”, 明知大論文集 第4輯, 明知大學, pp. 61-70.
- 22) 李 燦, 1973, “新石器時代의 自然環境,” 한국사 I, 국사편찬위원회, pp. 49-61.
- 23) 盧道陽, 1969, “十五世紀朝鮮의 水産業”, 地理學 第4號, 大韓地理學會, pp. 1-7.
- 24) 盧道陽, 1970, “15世紀朝鮮의 農收業”, 明知大論文集 第2輯, 明知大學, pp. 143-191.
- 25) 李 燦, 1965, 前揭論文, 註 17.
- 26) 張保雄, 1974, “韓國의 民家型式分類에 關한 試論”, 師苑 第3,4號, 東國大學校師範大學, pp. 45-51.
- 27) 李 燦, 1975, “中部地方의 民家形態研究概要”, 地理學과 地理教育 第4輯, 서울大學校教育大學院, pp. 27-39.
- 28) 張保雄, 1974, “濟州島民家の 研究”, 地理學 第10號, 大韓地理學會, pp. 13-31.
- 29) 張保雄, 1975, “新里 東活里의 側入型民家考”, 師苑 第5號, 東國大學校師範大學, pp. 36-45.
- 30) 申重盛, 1974, “韓國基督教의 傳來와 分布形態에 關한 研究”, 地理學과 地理教育 第3輯,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pp. 1-39.